

풀로 찍어 만든 무수한 점의 의미는? 7만5000년 토착민의 시공간과 맞닿다

July 26, 2021 | 김종목 기자

Page 1 of 1

호주 원주민 작가 다니엘 보이드, 한국서 두 번째 개인전 '보물섬'

풀로 찍어 만든 무수한 점의 의미는? 7만5000년 토착민의 시공간과 맞닿다

니콜 키드먼, 오페라하우스, 매드맥스 ... 호주 하면 대중문화와 유명 건축을 떠올린다. 장엄한 자연 풍광도 호주의 이미지를 구성한다. '문명에 물들지 않은 자연'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연에 살던 원주민의 존재는 사라지거나 가려졌다. 서구 문명이 파괴한 역사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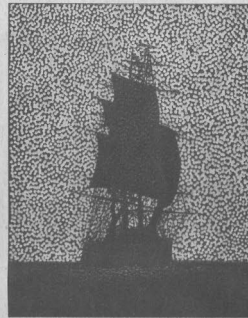
"호주 토착 문화의 7만5000년이라는 시간을 마주하노라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역사와 철학이 탐재한 단일적 관점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큐레이터 아사드 라자는 호주 원주민 작가 다니엘 보이드의 2020년 한국 첫 전시 '함명하는 광휘' 서문에 이런 글을 썼다.

이 글에는 보이드의 선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원래 원주민 공동체에 살았다. 유럽인들이 폭력적으로 내쫓았다. 조상들은 대항하다 추방당했다. 증조부 해리 모스만은 '도둑맞은 세대'다. 호주는 1970년까지 원주민 아동 강제이주 정책을 폈다. 부모 중한 명이 백인인 아이들을 강제수용했다. 원주민 열통 소멸과 백인 사회 흡수 동화를 노린 정책이다. 1975년에야 인종차별 금지 법률을 제정했다. 2008년에야 케빈 러드 총리가 "자랑스러운 민족과 문화에 기해진 교육과 탐욕"이란 표현을 쓰며 사과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에겐 '침략의 날'인 '호주의 날'(1월 26일)에 자결권과 토지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벌이곤 했다.

라자는 "유럽 식민지가 도래하기 이전의 7만5000년을 누르고 그 이후 250년간의 문화사가 우위를 점"하는 현실에서 이 비교우위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7만5000년 역사가 보이드의 작품과 이어진다고 본다. 보이드는 '불룩하고 투명한 풀로 찍은 점'이라는 화법으로 알려졌다. 그 기법이 전하려는 이야기는 원주민의 정체성, 추방과 배제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그는 "내 작품은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선조들의 존재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원주민 역사와 작가의 취지를 알면, 독특한 기법 너머 작품의 의미를 더 잘 볼 수 있다. '무제-GGASOLIWPS'는 증조부 모스만이 호주의 산호초 시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탐사에 참여했을 때 찍은 사진을 차용해 만든 작품이다. 백인들은 당시 원주민들을 탐사에 동원했다.

한국에서 개최한 두 번째 개인전(서울 삼성동 국제갤러리) 이름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동명 소설(1883) 제목에서 딴 '보물섬'이다. 보이드는 소설 <보물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 등을 '해적'으로 묘사한 2021년 작품. 국제갤러리 제공



바누아투섬 원주민을 기록한 아카이브 사진을 참조해 만든 작품. 국제갤러리 제공

섬>이 대서양과 태평양의 여러 원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었다고 본다. 작가는 작품 활동 초기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과 식물학자 조지프 बैं크스를 '해적'으로 묘사한 연작을 선보였다. <바운티호의 반란>이란 영화로도 유명한 바운티호는 노예들에게 먹일 팥나무를 구하러 갔다. 이 배를 묘사한 게 '무제-FFITFFF'이다. 바운티호 선장 윌리엄 블라이는 쿡의 수석항해사였다.

그는 강제노동과 학살, 해적들의 노략질을 직접 묘사하지 않는다. 은유와 차용의 방식은 기법으로 이어진다. 보이드는 각각의 '풀로 찍은 점'을 '렌즈'라고 말한다. 점점이 캔버스에 박힌 렌즈는 "하나의 집단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방식, 즉 복수성과 다양성"이다. 한국에서 처음 공개하는 'RIVERS'는 작가의 사유와 문제의식의 공간이 우주로 확장된 것을 보여준다.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영상 사운드 작품은 우주와 나, 사람들과 시공간 간 관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그는 말한다. 전시는 8월1일까지. 무료.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